

# 한국형 電子商去來 및 Web-EDI

문 창주  
(주) DACOM ST

## 요약문

본연구에서는 최근의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CALS 및 EC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형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업현황과 전자상거래 발전방향, WEB-EDI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향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및 WEB-EDI는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으로 있어 본 논문에서의 일반적 사례는 이의 확산에 크다란 도움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해외동향, 국내 EDI-VAN 추진현황등은 실제적 근거와 수치를 기초로하여 제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CALS/EC 활성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본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ALS and EC which is based on the rec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et, and to introduce a business situation of Korean model of electronic commerce and WEB-EDI and suggest its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future. In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nd WEB-EDI is expected to be escalated rapidly, the general examples in this study are thought to be greatly helpful to its development. In addition, the information including global trend of electronic commerce and domestic situation of EDI-VAN is provided on the practical basis with figures. The strategy for developing the domestic CALS/EC is suggested as guideline which leads to actively perform the business in these area triggered by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 1. 序論

최근 IMF 한파로 인해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부기관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도로 움츠러 들고 있는 경제상황하에서 경제성장의 기여도와 국민 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볼때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산업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현재 봉착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IMF 지원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국내기업의 성장기조를 단계적으로 조정

하고 고용안정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정보사회의 핵심인 정보를 공유하는 네티즌들의 상호연결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다.

여기에는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 구조를 개선하는 전자상거래를 우선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정보기술, 특히 CALS, EC, EDI 등과 같은 기업간 정보시스템은 우리가 당면한 기업의 구조제편에 있어 핵심이 될수 있으며 또한 업무처리비용, 물류비용, 정보수집과 각종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출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CALS/EC는 조직간의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한 부가가치의 제휴, 정보의 제휴, 가상기업, 네트워크형 조직관리등과 같은 과학적 경영방식과 협조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이 각기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수평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각종비용을 절감하는 선진기업으로 태어날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ALS 및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이해하고 글로벌 마켓(Global Market)이 가능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업현황과 전자상거래의 발전방향, WEB-EDI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CALS/EC의 概念

CALS(Commerce At Light Speed)란 '80년대 중반에 美國防省에서 Computer Aided Logistic Support의 약어로 "군수관리정보시스템"을 의미하였다.

그 후 이 정보시스템을 군수조달부문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다시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경영지원통합정보시스템)로 변환되었고 지금은 CALS(Commerce At Light Speed : 초고속경영정보시스템)의 약어로 통용되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

선진 8 개국에서 21 세기에 살아 남기 위해서 "초고속경영정보시스템"의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왜 CALS / EC가 필요한가

제 1 단계('60-'90)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상거래)

- 단순 문서교환 처리에서

제 2 단계('80-'98) EC(Electronic Commerce : 전자상거래)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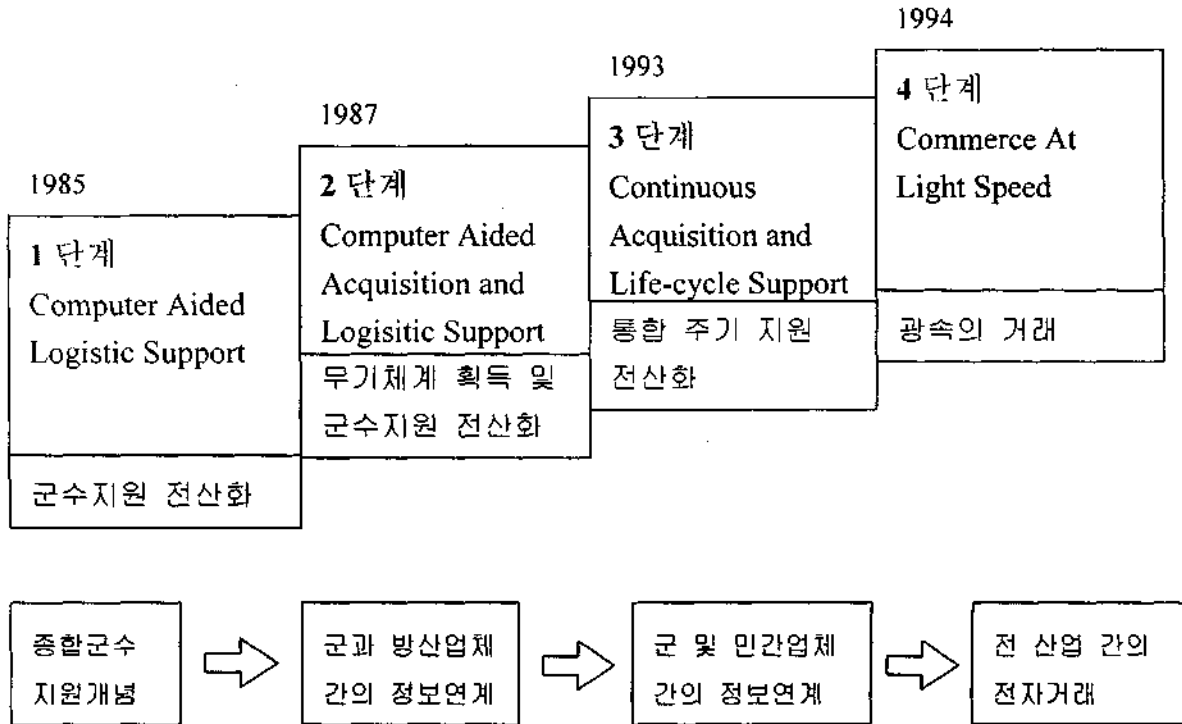
- 단순 물품주문, 판매, 구매, 배달 상거래에서

제 3 단계('90- ) EC/CALS는 초고속통신망(Internet 등)을 이용하여 설계/제조, 주문/판매, 운송/품질보증, 구매/조달/AS 등 전단계를 정보의 디지털화, 표준화, 개발시스템화, 정보공유로 국내/외간 상호 경쟁력으로 민첩하고 지능적인 글로벌 기업경영을 위한 생존권과 관계가 있으므로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

- CALS는 국방부 방산장비부품, 완제품조립스펙관리, 국방무기체계 형상관리, 기술정보 DB 관리로도 쓰이고 있다.

- CALS는 초고속통신망에서 WEB 기반 GPS 구현

- 대형건설공사 CALS 관리, 자동차 생산 CALS 관리등 여러분야의 활용을 위한 확대 개발하고 있다.



<그림 1> CALS 개념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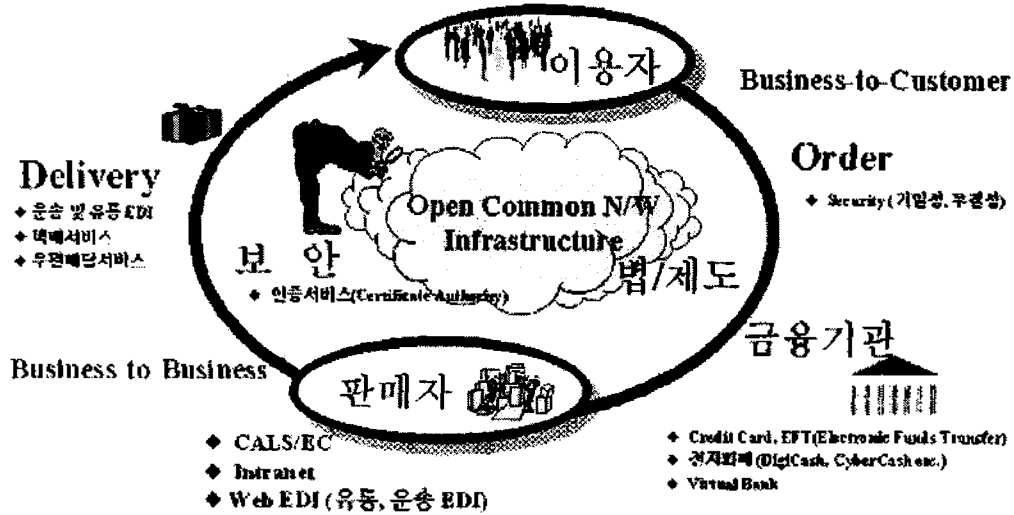
(자료원 : 김성희, "CALS 의 개념과 배경," [컴퓨터월드], 1995.11. p.197)

이상과 같이 작금의 IMF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 공공단체, 정부기관에서는 많은 투자개발을 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논술코자 한다.

### 3. 電子商去來의 到來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적 형태의 상거래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인 대기업들도 이제는 구조조정과 빅딜등의 기업 혁신과 함께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 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벌써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도 있다. 네스케이프나 야후같은 인터넷 사이트는 벌써 수천만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형태로 네트워크 쇼핑센터가 그자리를 굳히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 電子商去來 構成要素



<그림 2>

(DACOM 자료 인용 '98.6)

인터넷 상거래의 대상으로 관심을 끄는 아이템으로는 온라인 출판, DB 서비스 그리고 게임이나 오락과 같은 S/W의 유통을 들 수 있다. 이는 웹의 출현과 소액전자지불(micro payment) 메커니즘의 해결로 폭발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되며 네트워크상에서의 상업적인 활동이 기업에게 돈을 벌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구현하는 기본구도는 모든 비즈니스 정보를 상호 교류와 공유하고, 상호접속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 민첩하고 지능적인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는 그첩경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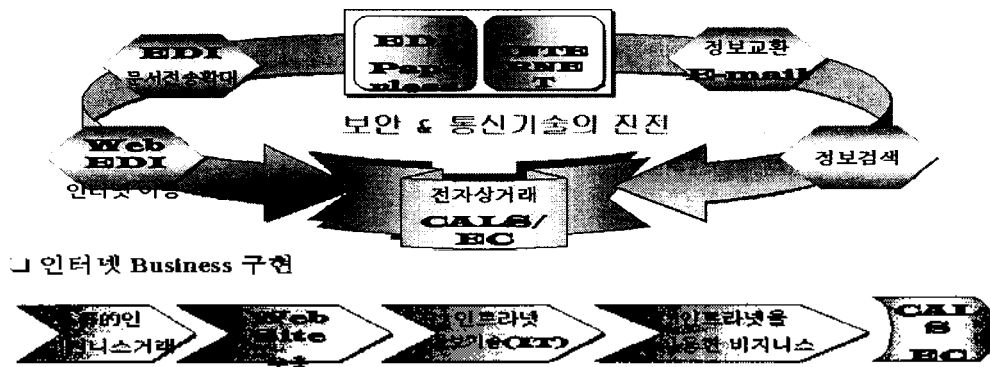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사단법인 커머스넷코리아와 한국전산원 주관으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 상거래 사업을 추진하여 testbed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데이콤과 관련업체에서는 전자상거래 실험서비스를 금년 6월에 개시하였다. 한국형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9장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과정<그림 3 참고>에서 이제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구현함으로써 장차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4. 電子商去來 海外動向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부각되면서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WTO, APEC 등 국제기구마다 이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주도하는 미국은 전자상거래 전임대사를 각국에 순회시켜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법제화를 설득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전세계 2억명이 이를 이용하여 교역규모 "6조 5천억"이라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 될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부관세화"를 주장하는 인터넷라운드가 부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IBM사가 기재부, 보스톤은행, 내셔널은행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표" 처리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자수표 처리시스템인 "뱅크서버"를 개발하였다. 이는 미국의 금융서비스 기술 컨소시엄인 FSTC가 제시한 통신규약에 따라 은행고객이 인터넷에서 수표를 발행, 수령할수 있게하고 각 은행에 입금된 전자수표를 분류해 결제해 준다. 이번 프로젝트로 연간 670억 달러에 이르는 수표발행비용을 절감할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공인된 전자수표 처리시스템이 인터넷에 등장하므로써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기를 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민간주도와 시장경제원리 순응을 원칙으로 전세계 인터넷 전자상거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97년 5월에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정통신고도화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다.

### ■ 電子商去來의 발전 과정



<그림 3>  
(DACOM 자료 인용)

전자상거래의 응용사업분야로는 Business-to-Consumer Market(전자시장서비스), Business-to-Business Market Business to Administration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 ● Business-to-Consumer Market(전자시장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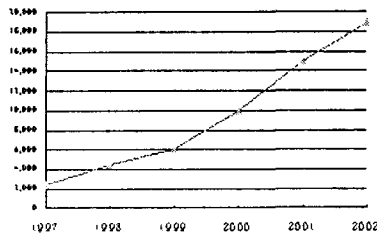
이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가격 및 물품에 대한 정보를 network 상에서 교환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형성 및 정보의 수집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시장활동을 다루는 가상공간으로 Shopping, Ticketing 등 제용역 및 재화의 판매를 담당하는 가상상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한 시장규모는 <그림 4>와 같다.

#### ● Business-to-Business Market

인터넷 전자지불서비스인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과 인터넷 EDI 또는 WebEDI, 전자서명, 암호화등의 인증 및 보안서비스, 시스템통합등의 업무분야를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 인터넷 서비스 現況(國內)

□ 국내 인터넷 이용자 증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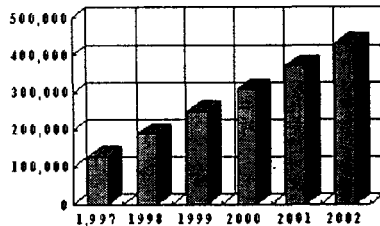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용자 수	2,500	4,500	6,000	10,000	15,000	19,000

출처: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정보통신부('97.9)

□ 국내 인터넷 호스트 증가 현황



(단위: 개)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호스트 수	131,005	189,000	249,000	309,000	368,000	431,000
증가율	79%	44%	32%	24%	19%	17%

출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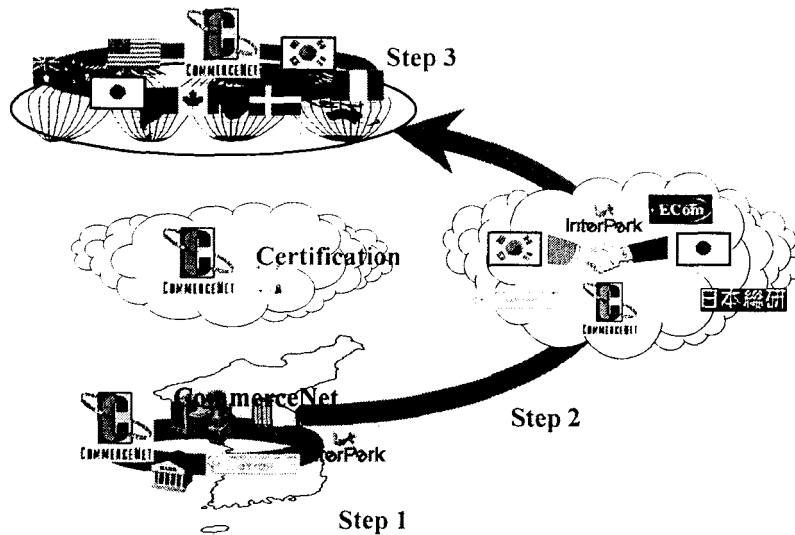
### 5. 국내 전자상거래 추진동향

세계각국이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도입,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조달 EDI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97년도부터 SERI에 전자상점, 상품검색, 전자지불등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을 의뢰하였으며, 정보호센타는 전자서명, 암호알고리즘 등 정보보호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또한 CALS/EC 기반구축을 위하여 CALS/EC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통산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자원센터(ECRC)를 설립하여 EDI 표준화 작업과 법/제도 수립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자금이체법등의 제정을 금년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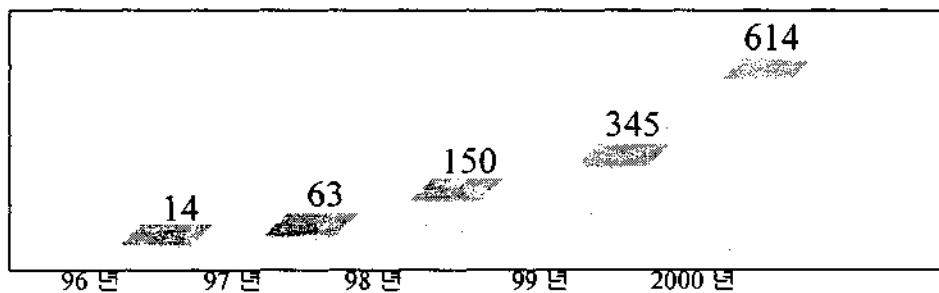
민간부문에서는 사단법인으로 커머스넷코리아를 설립하여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그림 5> 주관 및 전자화폐 실험모델(icash) 구축등 커머스넷사업의 국제적 파트너로서 전자상

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KAIST 중심의 EC 관련 학술연구를 위해 국제전자상거래센터(ICEC)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삼성, LG, 현대, 대우전자등 국내 4대 전자업체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EC 공동체제 구축을 논의중이며 현재 인터넷과 PC 통신상의 쇼핑몰만도 250 여개에 달하는등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5>

국내의 전자상거래현황 및 동향<그림 6>과 국내 EDI-VAN 추진현황<그림 7>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6> 국내 전자 상거래 현황 및 동향

출처: 경영과 컴퓨터(98.2 월 pp126~132), 98 정보산업 경기전망 中

## ■ 國內 EDI-VAN 推進 現況

		시 기	이 용 자	가입자		
무역/증권 EDI	KINET DACOM	'94년 ~	세관, 무역업체, 은행, 보험사 선사, 항공사, 운송사, CY 등	3,500 여 기관	KEDFAC T	전달사업자
금융전산망	금융결제원	'89년 ~	은행	전 은행	업계표준	전달사업자
물류 EDI	KINET	'95년 ~	항만청, 선사, 터미널, 운송사	1,500 기관	KEDFAC T	전달사업자
증권전산망	증권전신	'83년 ~	증권사	전 증권사	업계표준	전달사업자
의료 EDI	KT	'96년 ~	의료연합회, 근로복지공단 병원, 약국 등	3,500 기관	KEDFAC T	전달사업자
유통 EDI	DACOM 그룹 VAN	'89년 ~	유통업체, 납품업체	3,000여 기관	KEDFAC T	사업개발
조달 EDI	물특정 VAN	2001년 ~	조달청, 수요기관, 납품업체	-	기업표준 KEDFAC T	사업개발

<그림 7> 국내 EDI-VAN 추진현황

### 6. 主要 國家別 電子商去來 推進動向

#### ● 美國

미국은 민간기업 주도로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NII의 중요분야로 선정하여 '97년 7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A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0년까지 4,600만명의 소비자가 1인당 연간 350달러어치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구축중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1) The Federal Marketplace : U.S Federal Government 에 물자 및 용역 공급을 위한 One-Stop Source 를 제공하는 시스템
- 2) Federal Supply Service(FSS) : 매년 8 Billion 에 상당하는 미 정부 납품 물품에 대한 인터넷상의 교역 중재 시스템
- 3) Government Purchasing Project(GPP) : 비용절감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산물의 정부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 4) RosettaNet ( commerceNet US 가 주도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유통망 연계등 전반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현재 1 단계 완료후 2 단계사업을 진행중



이다.

● 日本

민간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통산성, 우정성, 대장성, 법무성등의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통산성은 전자상거래진흥협회(ECOM; 회원사 350 개사), JapanNet(회원사 : 13 개사)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정성은 “국제 공동 연구기금” 조성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전자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다.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는 Smart Islands Consortium 및 커머스넷 재팬을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중인 시스템으로 JETRO(The Japanese Government Procurement Data Base)는 정부조달 물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며, 국제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APEC/G7 회원국에 제안하고 있는 INGECEP( Integrated Generatio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Project) 프로젝트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정산센터 기능 수행을 통해 아시아지역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제권을 주도코자 하고 있다.

● 유럽(EU)

범 유럽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통합 공유를 추진중이며 '97년 4 월에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 채택하였고 '97.7.6 일에는 독일정부와 공동으로 “세계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각료선언(Bon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또한 '97.12 월에는 미.EU 정상회담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전자상거래 교역추진 지침과 향후 과제를 토의하였다. 현재 구축중인 시스템으로는 유럽 및 미국, GATT 국가내 공공기관의 Contract Notice 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Europe General 이 있다.

## 7. 우리나라의 CALS / EC 活性化 戰略

전자상거래는 민간의 자율 규제와 시장논리가 활성화의 핵심임을 먼저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한 민간자율의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민간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소비부문보다는 생산/유통분야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유도하고 정책 우선순위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생산/유통분야의 전자상거래에 정부지원

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갈로발마케팅을 지향하는 국제적 기술수준,규모에 바탕을 두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관련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는 국내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조기구축 및 개방적, 적극적 태세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핵심요소기술 및 표준화와 법/제도의 정비도 포함된다.

다섯째는 정부의 규제는 상거래상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관료직 절차, 세금 및 수출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법제도는 소비자를 사기 판에로부터 보호해 주고, 지적소유권과 개인비밀을 보호하며 잘못된 점을 찾아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8. CALS / EC 의 展 望 및 發 展 方 向

'95년 말부터 일기 시작한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은 초고속망 사업과 연계되어 급속히 증폭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화 및 핵심요소 기술개발 기반 취약한 국내 기술기반으로는 향후 전개될 "인터넷 라운드"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EC/CALS의 전망에서 미국의 역할과 활성화 여부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서 내걸은 정보화 사회의 실현은 인터넷과 CALS의 결합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면서 CALS를 통하여 또 하나의 무역장벽을 만들려고 시도하며 미국정부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을 CALS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은행 서비스와 인터넷상에서의 대금결제등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DACOM ST 등 솔루션 사업자는 은행과의 컨소시움을 통해 Electronic Banking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IC카드 및 전자화폐의 실용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쇼핑몰 사업자가 등장하고 Web-EDI에 의한 CALS/EC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 9. 韓國型 電子商去來 實驗事業 推進事例 紹介

### ■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 개요

□ 전담기관: 한국전산원

□ 주관기관: '(사)커머스넷코리아'

✓ (사)커머스넷코리아 개요

□ 법인설립: '97년 4월 4일 (정보통신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 CommerceNet 컨소시엄의 'Global Partner'

✓ 회원사 현황: 총 30개사 ('98년 4월 10일 현재)

□ 사업수행 총 비용: 22.8억원

✓ 정통부 지원 기금: 13.8억원 (정보통신부 '97정보화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 (사)커머스넷코리아 부담금: 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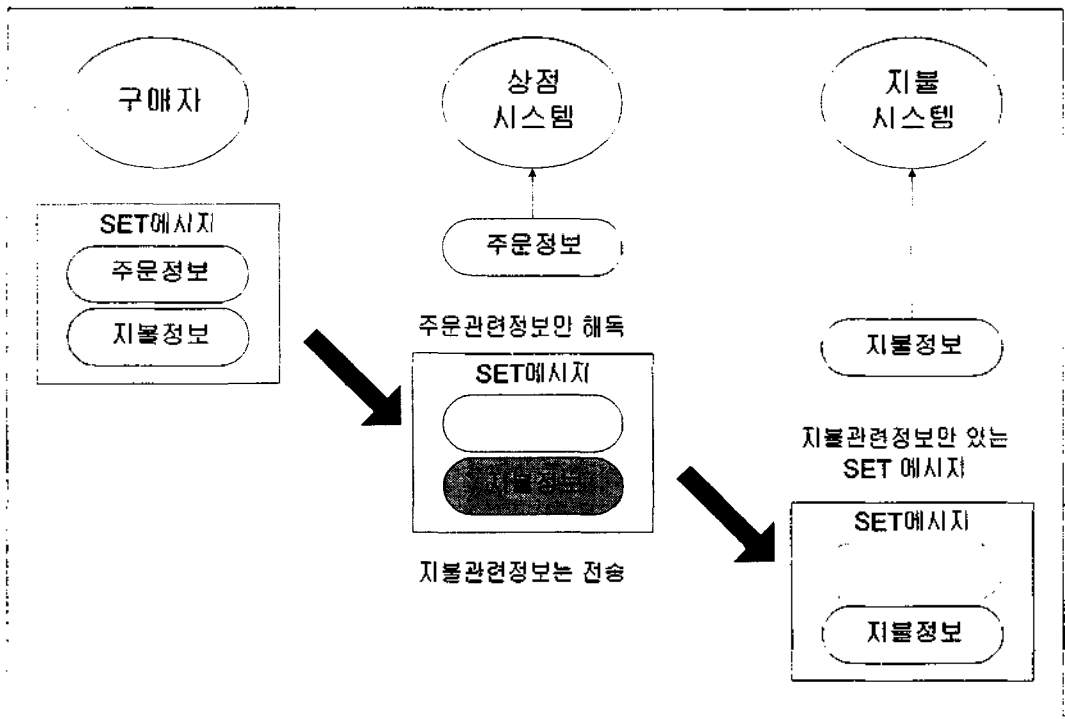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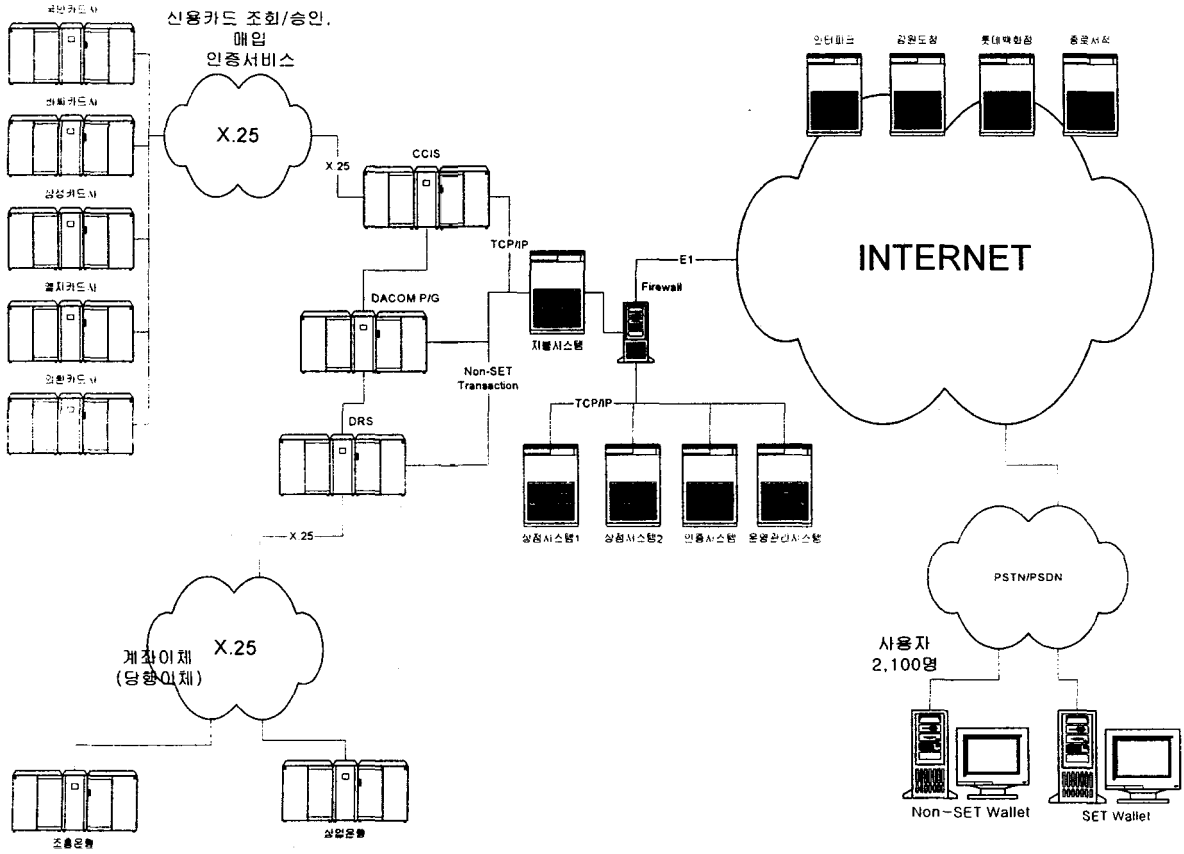
### ■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 목적

□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반인프라 구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향상

□ 해외 연계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모형 제시

□ 인터넷 전자상거래 신기술 개발 및 해외 기술 적용을 위한 'Testbed 시스템' 구축

## ■ 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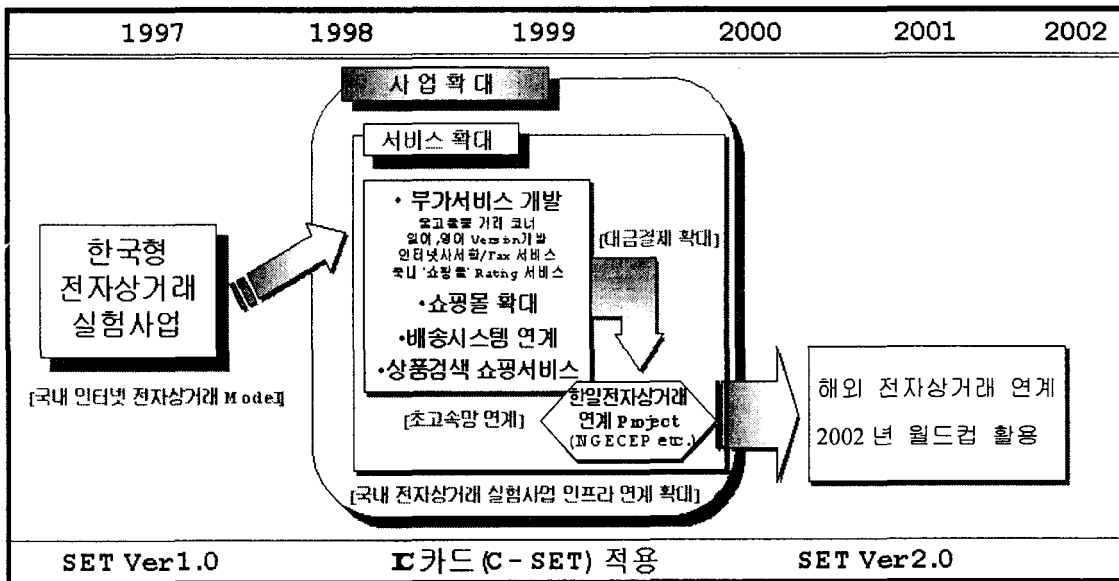
## ■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 운영방향

- 국내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터넷 비즈니스 창구 창출
  - ✓ 국내 기업의 '인터넷 Business 시장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환경 제공 (PG 및 CA 기능 확대)
-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실험사업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 효용성 극대화
  - ✓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인터넷 상거래 운영 표준 모형 제시
-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Testbed 기반 제공
  - ✓ 국산 암호화 기술 등 관련 전자상거래 기술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적용을 위한 Test System 역할 수행
- 국내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연계 및 해외 사업 협력 기반으로 사업 확대
  - ✓ 일본의 'INCECEP(Integrated Generatio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Project)'에 대한 국내 사업기반

### ※ '98~'99년도 중점 추진사업

- ◆ 韓日 전자상거래 연계사업 추진 : INCECEP 참여
  - ✓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 기반의 日本 쇼핑몰 연계에 의한 국가간 인터넷 전자쇼핑서비스 개발
- ◆ 배송서비스 구현 및 초고속망 연계 실험사업 확대
  - ✓ 배송시스템 구축으로 '상품배송' 및 '상품배송 상태 추적서비스' 개발 제공 및 초고속망 연계 서비스 구현
- ◆ 전자화폐 지불시스템 구축 : 소액 결제를 목적으로 한 Network형 전자화폐 및 Debt 결제시스템 구축
  - ✓ Web Publishing 및 소액 위주의 전문쇼핑몰 구축 및 Network형 전자화폐를 이용한 대금 결제 시험

## ■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 운영방향



## 10. WEB-EDI 소개

WEB-EDI는 기업내 또는 기업간 전자문서를 인터넷 환경하에서도 교환토록 구축하므로써 사용의 편의성과 거래처의 확산 및 신속한 업무변경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기업간 EDI/EC 서비스이다. 이는 기존의 EDI와는 달리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망 구축할 필요가 없어 구축비용이 저렴하며, 따라서 향후 EDI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콤에서 '98.7.1.부터 제공하는 WEB-EDI 서비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거래문서를 송수신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인터넷과 웹의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중이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자름길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WEB-EDI와 기존 EDI의 차이는 표<8>과 같다

표<8> WEB-EDI와 기존 EDI의 차이점

구 분	기존 EDI	WEB-EDI	비 고
환 경	폐쇄망, 자료교환처리 중심	OPEN 망, 온라인처리 중심	범용성
에뮬레이터	DACOM 전용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접근간편성
사용자 프로그램	Translator, Appl, 필수	Translator, Appl, 선택	유지보수편의성
사용절차	가입후 설치 및 교육실시	가입후 1시간이내 사용가능	확산성
강 점	안정적	1) 관리비절감 2) 업무확산용이 3) SCM 구현 가속화	
약 점	DOS 시장의 축소/폐지	장비 Upgrade 필요	

WEB-EDI의 활용한 기대효과를 든다면 우선 관리비의 절감이다.

예를 들면 100 사이트를 기준으로 약 2명의 인건비와 외주용역시 월평균 유지보수비용도 ID 당 4만원 수준이면 충분하다.

둘째는 업무확산으로 WEB-HOSTING, TYVLDHF 등과의 연동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확대가 가능하고 거래자간 간밀한 공유체제 구축과 최적의 온라인 조회업무를 제공하므로 조회업무 중심의 이용자 유형에 적합하다.

## 11. 結論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급속도로 확대될 전

망이다.

이미 선진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진전될 것이며 이제는 세계 최고 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사회이므로, 작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로서는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성주해야 한다. 급세기 말까지 전 세계는 1억대라는 컴퓨터의 보유와 함께 1백만개라는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묶어져 산업사회를 대체하는 정보사회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정보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정보통신의 통로라기 보다는 전통적 시장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전 세계를 국경없는 하나의 거대한 Syber Market, Global Market 으로 등장하고 있다.

커머스넷 코리아가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이나 데이콤과 각 카드사의 협력등 민간차원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은 인터넷에 의한 동화상과 3차원 기법의 거래방법 구현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앞날을 밝게 해주는 단면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터넷상의 멀티미디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등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및 법, 제도의 구축 노력은 기존의 금융, 유통업부의 관행과 시장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유통망 중심의 시장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17일 PC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이버 국민과의 대화”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애니메이션등 정보통신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어, 우리는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시점에 선 것이다.